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APRIL
2025 04

SAEROUN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행전]



예수님의 “노(No)”를 믿음의 “예스(Yes)”로 바꾸는 길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된 예수님 공생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알렸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어렵게 부탁한 것을 아들이 한 번에 거절하니가 불쾌할 만도 한데,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이 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복종하라.”


어, 이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마치 “예스” 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 일을 진행시킵니다. 하인들도 당황하고, 예수님도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한 미국이나 영국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노” 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왜 그러지? 그러나, 한국식 동양 문화에서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은 “저맥락 문화(Low Context)”와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저맥락 문화는 자기 원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명료하게 밝히는, 주로 서양권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반대로 고맥락 문화는 함축적이고 돌려 말하는 문화로써,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답답하게 말한다고 느끼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예스”이면서도 겉으로는 “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오히려 한국식 동양 문화와 더 비슷한 저맥락 문화에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예부터 “예스”, “노”가 분명한 것 보다는 “관찰다”(관계하지 아니하다는 준말)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표현으로는 “노”라고 했는데, 실은 “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듣는 쪽이 눈치 있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본문도 그런 맥락으로 보아야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엔 “노”라고 거절을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예스”하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응답 받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때론 기도할 때,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고, 화나신 것 같기도 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해선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대로 주님께 고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는 자세로 앞드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노” 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어떤 간절한 기도도 귀담아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처음에 거절하시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배짱, 기도의 뒷심이 약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처음엔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하는데, 몇 번 해 보고 소식이 없으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포기한 그 자리에 달려가서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 우리 주님이 절대 싫어하며 밀쳐 버리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힘이 날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행전]



2025.
04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0	31	1	2
6	7	8	9
13 수난주일	14	15	16
		15-19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0 부활주일	21	22	23
권사 임직식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4	5
10	11	12
성경속으로 개강 에버그린스쿨 개강		남성사역 러브 미니스트리
17	18	19
15-19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4	25	26
		공동체 야유회
1	2	3

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5. 04

1	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행 19:1-7
2	수	날마다 강론하니라	행 19:8-10
3	목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행 19:11-22
4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행 19:23-41
5	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행 20:1-16
6	주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삿 2:11-23
7	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 32:1-9
8	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 20:17-19
9	수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0-27
10	목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행 20:28-29
11	금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사	행 20:30-38
12	토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다	행 21:1-8
13	주일	[수난주일] 야심에서 비전으로	막 10:35-45
14	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26-38
15	화	[고난주간 특새] D-1)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 19:23-27
16	수	[고난주간 특새] D-2) 다 이루었다	요 19:28-30
17	목	[고난주간 특새] D-3)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요 19:31-37
18	금	[고난주간 특새] D-4)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다	요 19:38-42
19	토	[고난주간 특새] D-5)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다	요 20:1-10
20	주일	[부활주일] 살아계신 주님	계 1:12-20
21	월	빈 무덤	마 28:1-10
22	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행 21:9-16
23	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만남	행 21:17-25
24	목	성전에서 바울이 체포되다	행 21:26-40
25	금	바울의 회심 간증	행 22:1-11
26	토	네가 증인이 되리라	행 22:12-21
27	주일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삿 3:1-11
28	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 6:1-6
29	화	바울의 로마 시민권	행 22:22-29
30	수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행 22:30 & 23:1-5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행 19:1-7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took the road through the interior and arrived at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and asked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ey answered,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So Paul asked, "Then what baptism did you receive?" "John's baptism," they replied.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Paul said, "John's baptism was a baptism of repentance. He told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one coming after him, that is, in Jesus."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When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There were about twelve men in al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수

날마다 강론하니라

행 19:8-10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Paul entered the synagogue and spoke boldly there for three months, arguing persuasively about the kingdom of God.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But some of them became obstinate; they refused to believe and publicly maligned the Way. So Paul left them.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 and had discussions daily in the lecture hall of Tyrannus.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This went on for two years, so that all the Jews and Greeks who lived in the province of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목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행 19:11-22

-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 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 21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 22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4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행 19:23-41

- 23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 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 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 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 29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 30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 31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 32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 33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 34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 35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 36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 37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 38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 39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 40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 41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행 20:1-16

- 1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 2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 3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례를 머무니라
-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 8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 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 14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 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 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주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삿 2:11-23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The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They forsook the LORD, the God of their ancestors, who had brought them out of Egypt. They followed and worshiped various gods of the peoples around them. They aroused the LORD's anger

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because they forsook him and served Baal and the Ashtoreths.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 으며

In his anger against Israel the LORD gave them into the hands of raiders who plundered them.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all around, whom they were no longer able to resist.

15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Whenever Israel went out to fight,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m to defeat them, just as he had sworn to them. They were in great distress.

16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Then the LORD raised up judges, who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se raiders.

17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Ye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ir judges but prostituted themselves to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They quickly turned from the ways of their ancestors, who had been obedient to the LORD's commands.

- 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Whenever the LORD raised up a judge for them, he was with the judge and saved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enemies as long as the judge lived; for the LORD relented because of their groaning under those who oppressed and afflicted them.

- 19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But when the judge died, the people returned to ways even more corrupt than those of their ancestors,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and worshiping them. They refused to give up their evil practices and stubborn ways.

-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Therefore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Israel and said, "Because this nation has violated the covenant I ordained for their ancestors and has not listened to me,

- 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I will no longer drive out before them any of the nations Joshua left when he died.

- 22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I will use them to test Israel and see whether they will keep the way of the LORD and walk in it as their ancestors did."

- 23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The LORD had allowed those nations to remain; he did not drive them out at once by giving them into the hands of Joshua.

07

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 32:1-9

-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When the people saw that Moses was so long in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they gathered around Aaron and said, "Come, make us gods who will go before us. As for this fellow Moses who brought us up out of Egypt,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him."

-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Aaron answered them, "Take off the gold earrings that your wives,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re wearing, and bring them to me."

-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So all the people took off their earrings and brought them to Aaron.

-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He took what they handed him and made it into an idol cast in the shape of a calf, fashioning it with a tool. Then they said, "These are your gods,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When Aaron saw this, he built an altar in front of the calf and announced, "Tomorrow there will be a festival to the LORD."

-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So the next day the people rose early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presented fellowship offerings. Afterward they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got up to indulge in revelry.

-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Then the LORD said to Moses, "Go down, because your people, whom you brought up out of Egypt, have become corrupt."

-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They have been quick to turn away from what I commanded them and have made themselves an idol cast in the shape of a calf. They have bowed down to it and sacrificed to it and have said, 'These are your gods,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I have seen these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and they are a stiff-necked people."

08

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 20:17-19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From Miletus, Paul sent to Ephesus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18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When they arrived, he said to them: "You know how I lived the whole time I was with you, from the first day I came into the province of Asia.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I served the Lord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 and in the midst of severe testing by the plots of my Jewish opponent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9

수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0-27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You know that I have not hesitated to preach anything that would be helpful to you but have taught you publicly and from house to house.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I have declared to both Jews and Greeks that they must turn to God in repentance and have faith in our Lord Jesus.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And now, compelled by the Spirit, I a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ns me that prison and hardships are facing me.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25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Now I know that none of you among whom I have gone about preaching the kingdom will ever see me again.

26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Therefore, I declare to you today that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any of you.

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For I have not hesitated to proclaim to you the whole will of God.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0

목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행 20:28-29

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f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I know that after I leave, savage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and will not spare the flock.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금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사

행 20:30-38

30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Even from your own number men will arise and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So be on your guard! Remember that for three years I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I have not coveted anyone's silver or gold or clothing.

34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You yourselves know that these hands of mine have supplied my own needs and the needs of my companions.

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n everything I did, I showed you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we must help the weak, remembering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3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When Paul had finished speaking, he knelt down with all of them and prayed.

37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They all wept as they embraced him and kissed him.

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What grieved them most was his statement that they would never see his face again. Then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토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다

행 21:1-8

- 1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프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After we had torn ourselves away from them, we put out to sea and sailed straight to Kos. The next day we went to Rhodes and from there to Patara.

-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We found a ship crossing over to Phoenicia, went on board and set sail.

-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함이러라

After sighting Cyprus and passing to the south of it, we sailed on to Syria. We landed at Tyre, where our ship was to unload its cargo.

-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We sought out the disciples there and stayed with them seven days. Through the Spirit they urged Paul not to go on to Jerusalem.

- 5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When it was time to leave, we left and continued on our way. All of them, including wives and children, accompanied us out of the city, and there on the beach we knelt to pray.

-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After saying goodbye to each other, we went aboard the ship, and they returned home.

-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We continued our voyage from Tyre and landed at Ptolemais, where we greeted the brothers and sisters and stayed with them for a day.

-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Leaving the next day, we reached Caesarea and stayed at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one of the Sev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3

주일

야심에서
비전으로

막 10:35-45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
나이다

The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him. "Teacher," they said,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
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
소서

They replied,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
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대 예수께서 이
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
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We can,"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You will drink the cup I drink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
이니라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
를 내거늘

When the ten heard about this, they became indignant with James and John.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
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
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가 되고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14

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26-38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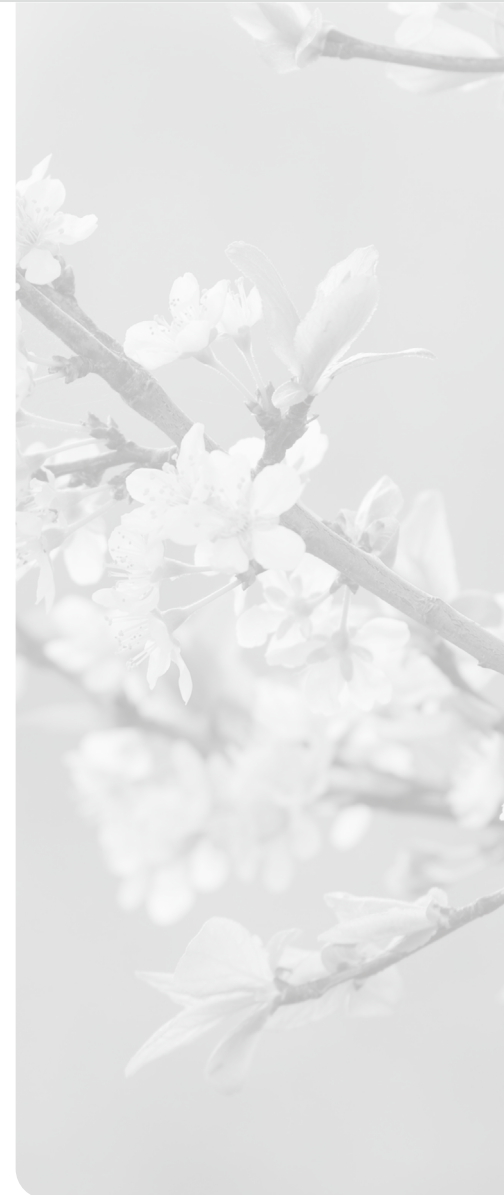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 어다 하고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15

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 19:23-27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When the soldiers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clothes, dividing them into four shares, one for each of them, with the undergarment remaining. This garment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Let's not tear it," they said to one another. "Let's decide by lot who will get it." This happen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that said, "They divided my clothe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garment." So this is what the soldiers did.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er, "Woman, here is your son,"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6

수

다 이루었다

요 19:28-30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Later, knowing that everything had now been finished, and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 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A jar of wine vinegar was there, so they soaked a sponge in it, put the sponge on a stalk of the hyssop plant, and lifted it to Jesus' lips.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7

목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요 19:31-37

31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Now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a special Sabbath. Because the Jewish leaders did not want the bodies left on the crosses during the Sabbath, they asked Pilate to have the legs broken and the bodies taken down.

32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The soldiers therefore came and broke the legs of the first man who had been crucified with Jesus, and then those of the other.

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But when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eak his legs.

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35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The man who saw it has given testimony, and his testimony is true. He knows that he tells the truth, and he testifies so that you also may believe.

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These things happene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Not one of his bones will be broken,"

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and, as another scripture says, "They will look on the one they have pierc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8

금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다

요 19:38-42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Later, Joseph of Arimathea asked Pilate for the body of Jesus. Now Joseph was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because he feared the Jewish leaders. With Pilate's permission, he came and took the body away.

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seventy-five pounds.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Taking Jesus' body, the two of them wrapped it, with the spices, in strips of line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Jewish burial customs.

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At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a new tomb, in which no one had ever been laid.

42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Because it was the Jewish day of Preparation and since the tomb was nearby, they laid Jesus ther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다

요 20:1-10

-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emoved from the entrance.

- 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So she came running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the one Jesus loved, and said,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So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started for the tomb.

- 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Both were running, but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and reached the tomb first.

- 5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He bent over and looked in at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but did not go in.

- 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Then Simon Peter came along behind him and went straight into the tomb. He saw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 7 또 머리를 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싼 대로 놓여 있더라

as well as the cloth that had been wrapped around Jesus' head. The cloth was still lying in its place, separate from the linen.

- 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Finally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side. He saw and believed.

- 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rom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o where they were staying.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

주일

살아계신
주님

계 1:12-20

-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I turned around to see the voice that was speaking to me. And when I turned I saw seven golden lampstands,

-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and among the lampstands was someone like a son of man, dressed in a robe reaching down to his feet and with a golden sash around his chest.

-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The hair on his head was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like blazing fire.

- 15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His feet were like bronze glowing in a furnace, and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rushing waters.

-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In his right hand he held seven stars, and coming out of his mouth was a sharp, double-edged sword. Hi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 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though dead. Then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 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I am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now look, I am alive for 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

-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Write, therefore, what you have seen, what is now and what will take place later.

- 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that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of the seven golden lampstands is thi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d the seven lampstands are the seven churches.

21

번

빈 무덤

마 28:1-10

-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ed him.

-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22

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행 21:9-16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He had four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10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
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After we had been there a number of days, a prophet
named Agabus came down from Judea.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
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Coming over to us, he took Paul's belt, tied his own
hands and feet with it and said, "The Holy Spirit says,
'In this way the Jewish leaders in Jerusalem will bind
the owner of this belt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When we heard this, we and the people there
pleaded with Paul not to go up to Jerusalem.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Then Paul answered,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When he would not be dissuaded, we gave up and
said, "The Lord's will be done."

15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After this, we started on our way up to Jerusalem.

16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
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
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Some of the disciples from Caesarea accompanied
us and brought us to the home of Mnason, where
we were to stay. He was a man from Cyprus and one
of the early discipl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만남

행 21:17-25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When we arrived at Jerusalem, the brothers and sisters received us warmly.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The next day Paul and the rest of us went to see James, and all the elders were present.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Paul greeted them and reported in detail what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his ministry.

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When they heard this, they praised God. Then they said to Paul: "You see, brother, how many thousands of Jews have believed, and all of them are zealous for the law.

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They have been informed that you teach all the Jews who live among the Gentiles to turn away from Moses, telling them not to circumcise their children or live according to our customs.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What shall we do? They will certainly hear that you have come,

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so do what we tell you. There are four men with us who have made a vow.

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Take these men, join in their purification rites and pay their expenses, so that they can have their heads shaved. Then everyone will know there is no truth in these reports about you, but that you yourself are living in obedience to the law.

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As for the Gentile believers, we have written to them our decision that they should abstain from food sacrificed to idols, from blood,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목

성전에서 바울이 체포되다

행 21:26-40

- 26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 32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 37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 38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5

금

바울의 회심 간증

행 22:1-11

- 1 부형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토

네가 증인이 되리라

행 22:12-21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A man named Ananias came to see me. He was a devout observer of the law and highly respected by all the Jews living there.

13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He stood beside me and said,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And at that very moment I was able to see him.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Then he said: 'The God of our ancestors has chosen you to know his will and to see the Righteous One and to hear words from his mouth.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his witness to all people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And now what are you waiting for? Get up, be baptized and wash your sins away, calling on his name.'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When I returned to Jerusalem and was praying at the temple, I fell into a trance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and saw the Lord speaking to me. 'Quick!' he said. 'Leave Jerusalem immediately, because the people here will not accept your testimony about me.'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Lord,' I replied, 'these people know that I went from one synagogue to another to imprison and beat those who believe in you.

20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And when the blood of your martyr Stephen was shed, I stood there giving my approval and guarding the clothes of those who were killing him.'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Then the Lord said to me, 'Go;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주일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삿 3:1-11

-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These are the nations the LORD left to test all those Israelites who had not experienced any of the wars in Canaan

-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he did this only to teach warfare to the descendants of the Israelites who had not had previous battle experience):

- 3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all the Canaanites, the Sidonians, and the Hivites living in the Lebanon mountains from Mount Baal Hermon to Lebo Hamath.

- 4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They were left to test the Israelites to see whether they would obey the LORD's commands, which he had given their ancestors through Moses.

-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The Israelites lived among the Canaanites, Hittites, Amor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 6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They took their daughters in marriage and gave their own daughters to their sons, and served their gods.

-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ahs.

-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so that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Naharaim, to whom the Israelites were subject for eight years.

-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But w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he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Othniel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who saved them.

- 10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n him, so that he became Israel's judge and went to war. The LORD gave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into the hands of Othniel, who overpowered him.

-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So the land had peace for forty years, until Othniel son of Kenaz died.

28

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 6:1-6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Some 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at is, the Sea of Tiberias),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and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signs he had performed by healing the sick.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Then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The Jewish Passover Festival was near.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29

화

바울의 로마 시민권

행 22:22-29

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The crowd listened to Paul until he said this. Then they raised their voices and shouted, "Rid the earth of him! He's not fit to live!"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As they were shouting and throwing off their cloaks and flinging dust into the air,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대

the commander ordered that Paul be taken into the barracks. He directed that he be flogged and interrogated in order to find out why the people were shouting at him like this.

25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As they stretched him out to flog him, Paul said to the centurion standing there, "Is it legal for you to flog a Roman citizen who hasn't even been found guilty?"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When the centurion heard this, he went to the commander and reported it. "What are you going to do?" he asked. "This man is a Roman citizen."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The commander went to Paul and asked, "Tell me, are you a Roman citizen?" "Yes, I am," he answered.

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 서부터라 하니

Then the commander said, "I had to pay a lot of money for my citizenship." "But I was born a citizen," Paul replied.

29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Those who were about to interrogate him withdrew immediately. The commander himself was alarmed when he realized that he had put Paul, a Roman citizen, in chain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0

수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행 22:30 & 23:1-5

30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The commander wanted to find out exactly why Paul was being accused by the Jews. So the next day he released him and ordered the chief priests and all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to assemble. Then he brought Paul and had him stand before them.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Paul looked straight at the Sanhedrin and said, "My brothers,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in all good conscience to this day."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At this the high priest Ananias ordered those standing near Paul to strike him on the mouth.

3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Then Paul said to him, "God will strike you, you whitewashed wall! You sit there to judge me according to the law, yet you yourself violate the law by commanding that I be struck!"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Those who were standing near Paul said, "How dare you insult God's high priest!"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Paul replied, "Brothers, I did not realize that he was the high priest; for it is written: 'Do not speak evil about the ruler of your peopl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5.
04

순예배 가이드

01

1. 4월 둘째 주 (4/6-12)

[수난주일] 야심에서 비전으로 (막 10:35-45)

2. 4월 셋째 주(4/13-19)

[부활주일] 살아계신 주님 (계 1:12-20)

3. 4월 넷째 주(4/20-26)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삿 3:1-11)

4. 4월 다섯째 주(4/27-5/3)

사사 에훗 (삿 3:12-30)

5. 5월 첫째 주(5/4-10)

사사 드보라 (삿 4:1-16)

02

[순례배 가이드] 4월 둘째 주 (4/6-12)

야심에서 비전으로

마가복음 10:35-45

지난주 본문 요약 |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버리다 (삿 2:11-23)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으나, 사사들이 죽은 후 더욱 타락하였고, 이방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The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him. "Teacher," they said,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They replied,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관찰/해석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We can,"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You will drink the cup I drink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When the ten heard about this, they became indignant with James and John.

* 잔과 세례(38절): 일반적인 의미의 잔과 세례가 아니라, 고난과 심판, 죽음과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은유입니다.

관찰/해석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 **대속물(45절):** 본래 뜻은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곧, 부채(빚), 숙박(노예상태), 죄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도록 대신해서 부담하는 댓가를 의미하는데, 신약에서는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인간적 욕심이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2. 정욕으로 시작된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기도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3.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나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03

[순예배 가이드] 4월 셋째주(4/13-19)

살아계신 주님

요한계시록 1:12-20

지난주 본문 요약 | 야심에서 비전으로 (막 10:35-45)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인자가 온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며,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I turned around to see the voice that was speaking to me. And when I turned I saw seven golden lampstands,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and among the lampstands was someone like a son of man, dressed in a robe reaching down to his feet and with a golden sash around his chest.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The hair on his head was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like blazing fire.

관찰/해석

15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His feet were like bronze glowing in a furnace, and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rushing waters.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In his right hand he held seven stars, and coming out of his mouth was a sharp, double-edged sword. Hi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though dead. Then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 **일곱 금촛대(12절)**: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촛대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금촛대에 비유하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 **발에 끌리는 옷(13절)**: 의와 명예를 나타내는 옷을 가리키며, 주로 왕의 옷, 제사장의 옷이 해당됩니다.

* **가슴에 금띠(13절)**: 대제사장의 흉패를 가리키며,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 **일곱 별(16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상징합니다.

관찰/해석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 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I am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now look, I am alive for 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Write, therefore, what you have seen, what is now and what will take place later.

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that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of the seven golden lampstands is thi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d the seven lampstands are the seven churches.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손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교회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와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3. 살아계신 주님의 비밀을 세상과 열방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계 1: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04

[순예배 가이드] 4월 넷째 주(4/20-26)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사사기 3:1-11

지난주 본문 요약 | 살아계신 주님 (계 1:12-20)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을 묘사하는데, 일곱 금 촛대와, 그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곧 그리스도이며, 요한이 본 것과 현재와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These are the nations the LORD left to test all those Israelites who had not experienced any of the wars in Canaan
-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he did this only to teach warfare to the descendants of the Israelites who had not had previous battle experience):
-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all the Canaanites, the Sidonians, and the Hivites living in the Lebanon mountains from Mount Baal Hermon to Lebo Hamath.

-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They were left to test the Israelites to see whether they would obey the LORD's commands, which he had given their ancestors through Moses.
-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The Israelites lived among the Canaanites, Hittites, Amor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They took their daughters in marriage and gave their own daughters to their sons, and served their gods.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ahs.

관찰/해석

*** 시험(1절):** 신앙의 연단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험'(test)을 의미하며, 사탄이 죄로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temptation)과는 구분됩니다.

관찰/해석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so that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Naharaim, to whom the Israelites were subject for eight years.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

But w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he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Othniel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who saved them.

10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n him, so that he became Israel's judge and went to war. The LORD gave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into the hands of Othniel, who overpowered him.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

So the land had peace for forty years, until Othniel son of Kenaz died.

* **사사(10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 정치 지도자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정치나 군사 분야로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2.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3.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3:4]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05

[순예배 가이드] 4월 다섯째 주(4/27-5/3)

사사 에훗

사사기 3:12-30

지난주 본문 요약 |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삿 3:1-11)

여호와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억압을 당하게 되었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 웃니엘을 보내 구원하여 평강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because they did this evil the LORD gave Eglon king of Moab power over Israel.

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Getting the Ammonites and Amalekites to join him, Eglon came and attacked Israel, and they took possession of the City of Palms.

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열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The Israelites were subject to Eglon king of Moab for eighteen years.

관찰/해석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Agai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and he gave them a deliverer—Ehud, a left-handed man, the son of Gera the Benjamite. The Israelites sent him with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16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Now Ehud had made a double-edged sword about a cubit long, which he strapped to his right thigh under his clothing.

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He presented the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who was a very fat man.

18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After Ehud had presented the tribute, he sent on their way those who had carried it.

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But on reaching the stone images near Gilgal he himself went back to Eglon and said, "Your Majesty,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The king said to his attendants, "Leave us!" And they all left.

* 돌 뜨는 곳(19절): 문자적으로는 '돌을 깎아 다듬는 곳'이라는 뜻으로, 채석장. 대부분 우상을 제작하는 곳을 말합니다.

관찰/해석

20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 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Ehud then approached him while he was sitting alone in the upper room of his palace and said, "I have a message from God for you." As the king rose from his seat,

21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Ehud reached with his left hand, drew the sword from his right thigh and plunged it into the king's belly.

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Even the handle sank in after the blade, and his bowels discharged. Ehud did not pull the sword out, and the fat closed in over it.

23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Then Ehud went out to the porch; he shut the doors of the upper room behind him and locked them.

24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After he had gone, the servants came and found the doors of the upper room locked. They said, "He must be relieving himself in the inner room of the palace."

관찰/해석

25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They waited to the point of embarrassment, but when he did not open the doors of the room, they took a key and unlocked them. There they saw their lord fallen to the floor, dead.

26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리로 도망하니라

While they waited, Ehud got away. He passed by the stone images and escaped to Seirah.

27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When he arrived there, he blew a trumpet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Israelites went down with him from the hills, with him leading them.

28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Follow me," he ordered, "for the LORD has given Moab, your enemy, into your hands." So they followed him down and took possession of the fords of the Jordan that led to Moab; they allowed no one to cross over.

29 그 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At that time they struck down about ten thousand Moabites, all vigorous and strong; not one escaped.

30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That day Moab was made subject to Israel, and the land had peace for eighty years.

* 발을 가리움(24절):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손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죄와 우상을 이기는 주의 군사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3: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마칠 때에

01

[순예배 가이드] 5월 첫째 주(5/4-10)

사사 드보라

사사기 4:1-16

지난주 본문 요약 | 사사 에훗 (삿 3:12-30)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 당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서늘한 다락방에서 칼로 에글론을 죽였고,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과의 전투에 승리하여 80년간 평온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p>1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now that Ehud was dead.</p>
	<p>2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So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s of Jabin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Sisera,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based in Harosheth Haggoyim.</p>
	<p>3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Because he had nine hundred chariots fitted with iron and had cruelly oppressed the Israelites for twenty years,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p>

관찰/해석	
	<p>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Now Deborah, a prophet, the wife of Lappidoth, was leading Israel at that time.</p>
	<p>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벳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She held cour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Israelites went up to her to have their disputes decided.</p>
	<p>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She sent for Barak son of Abinoam from Kedesh in Naphtali and said to him,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s you: 'Go, take with you ten thousand men of Naphtali and Zebulun and lead them up to Mount Tabor.</p>
	<p>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I will lead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to the Kishon River and give him into your hands."</p>

* **다볼 산(6절):** '채석장'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호수 서남쪽 약 20km지점의 해발 588m의 산이며, 시인들은 이 산을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 **기손 강(7절):** '굴곡'이라는 뜻으로 다볼 산과 길보아 산에서 발원해 갈멜 산 북쪽으로 흘러가는 약 37km의 강이며, 팔레스타인에서는 요단 강 다음으로 중요한 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처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관찰/해석

- 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Barak said to her, "If you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don't go with me, I won't go."

- 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Certainly I will go with you," said Deborah. "But because of the course you are taking, the honor will not be yours, for the LORD will deliver Sisera into the hands of a woman." So Deborah went with Barak to Kedesh.

-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There Barak summoned Zebulun and Naphtali, and ten thousand men went up under his command. Deborah also went up with him.

- 11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Now Heber the Kenite had left the other Kenites, the descendants of Hobab, Moses' brother-in-law, and pitched his tent by the great tree in Zaanannim near Kedesh.

-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When they told Sisera that Barak son of Abinoam had gone up to Mount Tabor,

관찰/해석

- 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학교 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Sisera summoned from Harosheth Haggoyim to the Kishon River all his men and his nine hundred chariots fitted with iron.

-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 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Then Deborah said to Barak, "Go!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given Sisera into your hands. Has not the LORD gone ahead of you?" So Barak went down Mount Tabor, with ten thousand men following him.

- 15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At Barak's advance, the LORD routed Sisera and all his chariots and army by the sword, and Sisera got down from his chariot and fled on foot.

- 16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학교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Barak pursued the chariots and army as far as Harosheth Haggoyim, and all Sisera's troops fell by the sword; not a man was left.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2.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3. 앞서 가시는 우리의 용사이신 주님을 뒤따르며,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4: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2025. n Him Who Strengthens Me 04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간증

02

- 1. 최희진A 성도 (E강남공동체)
- 2. 이상민B 집사 (W강남공동체)
- 3. 김선영G 피택권사 (S강남공동체)
- 4. 김대훈 목사 (우면공동체 담당)
- 5. 이수경D 성도 (N서초공동체)
- 6. 이문영 성도 (N강남공동체)
- 7. 송지숙 권사 (W서초공동체)
- 8. 홍진선 성도 (W강남공동체)



2016 - 2025

특별새벽기도회 10주년 완주

지난 10년간 40일 새벽을 기도로 깨운 감신을 축하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맞춤형 은혜

최희진A 성도 (E강남공동체)



힘든 시국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던 저에게 이번 특새는 매일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좌절과 방

해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제 인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위축되고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No”라는 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도의 거절이 하나님의 경계(boundary) 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알게 되면서 인사로 인한 낙망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특새뿐 아니라 주일예배의 궤도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 쓰나미처럼 몰려온 업무들을 선택과 집중, ‘Hope & Wait’의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앙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영긴 실타래 같던 일들이 한 올 한 올 풀리며 중력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밤을 보면 살리라의 말씀이 있던 날, 오후 늦게 인사팀으로부터 긴급히 구성되는 부서에 희망 하면 인사과와 점수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데 모세에게 증보를 요청하던 상황이 떠올라서 바로 중보팀, 공동체, 순장방, 순방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분별과 지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보냈습니다. 기도 끝에 결국 저는 제안을 거절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좋

은 기회를 거절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후 우물물 아 솟아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소망이 생기고 미래를 향한 감사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사에 대한 의외의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부서는 주일도 없고 바쁘고 업무 부담이 있는 곳이라 또 어김없이 불안해졌지만 ‘하나님 없이 가는 꽃길은 없습니다’라고 하신 한 홍 목사님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제가 꽃길을 가던 좌절되던, 나귀를 통해서라도 가로막을 것이며 가고 서는 것 다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비느하스를 통해 제 안의 시므이 같은 죄들을 회개케 하셨고 바로 다음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로 인사명령이 나왔습니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니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통은 2-3년마다 오는 인사인데 제 인사는 3년 동안 세 번이나 예상 밖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무슨 뒷배가 있거나 제가 능력이 있을 줄 착각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믿음 없는 제게 보이시는 맞춤형 기적입니다.”

지나고 보니 제 영성훈련을 위한 은혜의 옮기심이었습니다. 제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는 부서인 만큼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또 다른 10년의 특새가 기대됩니다

이상민B 집사 (W강남공동체)



새로운교회에 오면서 저희 가족은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며 가정 예배가 더욱 풍성해져 감을 느꼈고, 새로운교회에 오기 전 고갈되어 가던 영적 갈급함이 매일매일 채워져 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그 해, 목사님께서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자연스레 우리 가족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 둘에 뱃속에 아이까지 만삭의 몸으로 아이들을 챙기며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특새 매일마다 부여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 자리를 꼭 사수하고 말리라는 사명감을 느끼며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그 해 2월 9일, 40일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출생을 알리는 신호가 왔고, 그렇게 그 새벽 저희 집 막둥이는 태어났습니다. 40일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욕심에 병원에서는 물론, 산후조리원에서도 40일 새벽기도를 이어갔던 공이 인정되어, 첫째 40일 특새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져, 어느덧 올해 10년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매년의 특새 주제가 어찌나 저희 가정, 회사 기도제목과 함께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혼자 싸우라 안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작년 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쉽지 않은 여

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저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잘하면 60% 회복이라는 통보와 어쩌면 자궁암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올해 초, 건강에만 신경 쓰자며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대부분 내려놔왔습니다. 내려놓은 후, 소속감 없이 느껴지려는 허전함이 들어올 틈도 없이 요즘 매일 특새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함이 제게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해야 60% 회복이라던 안면마비는 90% 이상으로, 자궁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올 해는 저희 부부가 40일 특새 10년을 이룬 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새로운교회로 인도해 주신 10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첫째에 태중에서 특새에 참석했던 아이도 이제는 더 이상 엄마아빠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2월 초에 학교가 개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배에 참석하고, 학교에 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10년의 결코 쉽지 않았던 모든 순간과 여정들이 새로운교회를 통해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매해를 승리로 마치게 하시며, 그다음 해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또 다른 10년의 특새가 기대됩니다. 20년 완주, 30년 완주,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선영G 피택권사 (S강남공동체)



작년 9월 말쯤 오른 쪽 발을 접질렸던 저는 발가락에 금이 가게 되어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이 붓고 통증이 있었음에도 활동을 자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엑스레이 상의 뼈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불기는커녕 더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월이 넘어가면서 이상함을 느낀 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고 엑스레이 상 뼈가 안 붙을 것 같으니 깁스하느라 애쓰지 마라. 앞으로 10분 이상 걷기 힘들 것이고 소염제 먹으며 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치료가 불가능하니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태도에 기분이 언짢았지만 검색을 통해 발가락뼈 불유합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반깁스를 풀고 걷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가까이 제대로 걷질 않아서인지 막상 정상적으로 걸으려 하니 다친 발가락은 물론 발바닥 안쪽에서부터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걸을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두려움의 영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할 수 없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정으로 다시 반깁스와 목발 생활을 하며 마지막으로 한의원에서 한약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2025년 특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별경게 부어 있는 발을 보면 좀 전의 충만했던 믿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지금까지 낫지 않던 발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제외한 외출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절뚝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아침에 깨어 밤에 잠들 때까지 한시도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막연한 기다림 속에 인내의 한계를 느껴 저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팔각팔각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제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저를 작업하고 계심을 어렴풋이 느끼며 저 때문에 남편도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외로이 지나고 있던 중 특새 설교 말씀에서 인내는 우리의 영성을 연단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고난을 통해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물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무 많은 검색으로 부정적 결말을 예상하며 떨고 있을 때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동생에게 “그동안 수없이 기도해 왔지만 이번 문제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나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하소연했는데 바로 다음 날 새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왕 시혼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익숙하지 않은 막강한 적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치러야 할 때는 특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돌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믿음 만으로 나를 다스려야 하는 영적 싸움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듯 끊임 없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인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이 엄청나게 큰 내공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뻗속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간증문 쓸 날이 과연 올까?’ 생각하며 의심과 낙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던 1월 말쯤, 족부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감 없이 진단을 목적으로 간거였는데, 검사한 결과 뼈가 붙지는 않았지만 다른 조직이 뼈를 잡아줘서 아프지 않을 테니 깁스 떼고 약도 필요 없고 정상생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지? 이렇게 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가슴 속을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발을 디더보니 정말 통증이 한결 줄어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착각했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고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하는 권사스쿨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치 시간을 맞춘 것처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의 마음가짐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운동화를 신을 수 있다는 것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이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런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진 사랑의 빛을 저 또한 기도와 위로로 공동체를 섬기며 타인의 기쁨을 돕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옥 같았지만 그만큼 은혜도 컸던 지난 한 달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고, 이 경험이 강력한 영양제가 되어 앞으로의 삶에 유익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선물로 받은 아이

김대훈 목사 (우면공동체 담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6년이 되어 가도록 저희 가정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 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며, 아이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우리 같은 부부에게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단 한 마디의 짧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 세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믿음의 확신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매 해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를 보내주실 거라는 제 믿음에는 점차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 부부를 소개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할 때면 결혼 6년 차에 당연히 아이가 있을 거라 믿으시는 분들에게 ‘아직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굳이 설명을 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임신소식을 전해주시는 성도님들의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하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우리 부부에게 언제 아이를 보내 주실

까 하는 초조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봄날에 드디어 우리 가정에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약한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임신 소식이었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하루하루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임신 소식이었기에 말할 수 없는 낙담이 찾아왔지만 마냥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유산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저는 아직 마르지 않은 두 뺨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의 순간을 낙담하고, 절망하는 날로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황급히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귀한 생명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에 대해서 더 큰 기대와 확신을 품게 하심에 감사’ 그렇게 감사의 기도제목들을 적다 보니 생각보다 감사할 것이 많아 그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날을 좌절이 아닌 감사의 순간으로 기억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러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담임 목사의

목양과 모든 부목사님들의 위로로 그 힘든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였던 2024년 40일 특새에 우리 부부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한 돌파를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가슴 한편의 아픔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백업 기도를 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기도제목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목사님의 기도인도에 갑자기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는 백업기도자로서 무대 위에 올라온 부목사가 아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단 한 명의 예배자다’라고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 제 아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제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미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예배와 기도는 제게 믿음의 확신을 안겨주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헤와 같이 빛나는 아이를 주겠노라’고 하신 말씀대로 귀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기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모든 부목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일처럼 기도해 주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아이 이름의 뜻대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한 번이를 잘 양육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차디찬 겨울이 가고, 주님이 주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수경D 성도 (N서초공동체)



이번 겨울은 저의 영혼도 겨울이었습니다. 6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은 정교수가 되기 위해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 다 떨어지고 다시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빈자리를 항상 지켜주던, 17년을 함께한 저의 반려견 포실이 떠나보내며, 저는 전례 없는 아픈 이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로 슬프더라도 무너지지는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새벽, 빼곡하게 적힌 설교노트 사진과 함께 ‘오늘도 홍이 오빠 말씀으로 하루시작!’이라는, 멀리 대구에서 온 엄마의 메시지와 더불어 저의 특새도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엄마의 연세는 72세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심각한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공황장애 치유와 교수합격을 위해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해 주셨는데, 5년간 거듭되는 불합격과 나아지지 않는 남편의 모습으로 인해 저의 소망도, 믿음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기도부탁도 하고 싶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새로 취업한 학원에서 하루 종일

수업에, 고된 업무를 하고 퇴근해도, ‘수고했어, 새 학원은 어때?’ 그 한마디를 묻기는커녕 방문 닫고 누워만 있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 마음과 “끝은 있을까” 싶은 저의 가정생활로 인해, 하루 종일 학원에서 에너지를 다 쏟은 날에도 2시간을 채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30대 때 심각하게 겪은 적이 있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다시 저를 잠식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고단한 몸과 마음이 지속되면서 스테이션과 본당을 오갔던 특새에베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잠이라도 자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과 남은 3주만큼은 본당에서 부르짖고 싶은 마음으로 수면제를 처방받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지그릇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울증 고치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진 않아요. 약한 자가 아니라 약한데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도우신다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저의 감정보다 제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종종 말씀과 글귀를 보내 주시는 우리 순 권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나를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는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닫힌 문 앞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준비한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며 나아가보렴. 나는 너를 위해 문을 열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너는 나의 계획 속에서 안전하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 분명한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낙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의 설교를, 웬지 모를 이끌림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 그 주일에도 귀를 쫓긋 세우고, 마음에 새기며 들었는데, 다시 듣는 목사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저에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여자 모세가 된 것 같았습니다. 특새 기간 동안 ‘모세 부럽다,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될 수 있을까’ 하며 중얼거린 마음의 소리까지 주님은 듣고 계셨구나. 그렇게 그날 밤, 제 마음에는 차디찬 겨울이 가고, 주님이 주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다음날이 교사특순이라 새벽 4시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설교제목부터 말씀내용까지-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평소와 다른 목사님의 기도는 화룡점정이었습니

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Oh, my God. Game over.’

눈물의 기도 가운데, 더 이상 외로움의 토로가 아닌, 감사제목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달려와 안길 때에도, “선생님은 카리스마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예요”라며 놀릴 때에도 제 눈에는 사랑스럽기만 한 뉴젠 별이들. 저의 vision 자체이며, 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싶은 내게 허락하신 10대 아이들. 제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라도 기도해 주고 제 손 잡아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나의 사람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봄날 같은 특새의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수로 임명된다거나, 저의 불면증이 단번에 고쳐진다거나 하는 일보다 제 마음속 주님을 향한 더욱 굳건해진 믿음과 신뢰가 가장 소중한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또 겨울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하나님과 저만의 깊고도 진한 은혜의 추억은 저를 오탁이처럼 다시 일으켜줄 테니까요.

그 어떤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문영 성도 (N강남공동체)



둘째를 출산하고 난 뒤 아이 둘을 키우며 치열한 회사생활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쌓여갈 무렵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셋째 주 주일예배 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를 시작한다는 광고를 듣고 '아, 그냥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야근이 일상화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이전에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일어나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 1월 2일 새벽부터 저의 지난 10년간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첫해에는 한 홍 목사님이 새벽 강단에서 하시는 설교가 매일매일이 부흥회 수준 정도로 intensity가 높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이 끌 같았던 그 말씀을 놓칠 세라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QT책에 빠곡히 설교말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제가 어느덧 첫 번째 특새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새를 통해서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이며,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특새를 완주한 이후부터, 저에게 신년 특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완주해야만 하는 1년 중의 당연한 여정다가 되었고, 한해를 버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많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좌천되기도 했고, 건강하시던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로 언어를 상실한 채 병상에 누워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사랑하는 아홉 살 아들 동원이를 음주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2023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외국인 상사의 이유 없는 폭언에 시달려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0년간 제 인생에 여러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기

도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견디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10년의 특새를 돌아볼 때 어떤 해에는 너무나 피곤한 육체로 인해 말씀에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주로 새벽마다 2층 모니터 앞에서 줄며 풍차 돌리기만 하다가 보낸 해도 있었고, 동원이를 보내고 난 직후의 특새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끝끝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들을 통해 저의 영적인 맷집은 더욱 강해졌고,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제가 10년간 특새를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공동체가 다 함께 삼겹살 안에 연결되어 앞뒤에서 같이 뛰며 페이스메이킹을 해주는 그 거대한 영적 대열 안에 저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했지만, 공동체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새로운교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성도들에게 결코 나태할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새 초기 몇 년간 기도에 대한 기본을 다지고 나니, 이후에는 성경통독으로 순 안에서 서로를 챌린지하는 단계

로 넘어갔고, 통독을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성경 필사를, 성경 필사 이후에는 다니엘 금식이라는 무시무시한 훈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금식 이후에는 또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받았던 특새 완주 선물은 제 인생의 그 어떤 물건보다도 더 소중한 전리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 주원에게 지난 10년간 받은 특새 완주 선물을 길갈의 열두 돌처럼 보여주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특새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새벽마다 변함없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 홍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일관성과 집중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설과, 때로는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늘 그 자리에서 주차 봉사 자리를 지켜 주신 주차팀 집사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저를 새로운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년 후 저의 간증을 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지숙 권사 (W서초공동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지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사춘기 딸처럼 어리광이 많아지곤 합니다. 아침에 기도한 것이 저녁에 응답이 되어 돌아왔다는

누군가의 고백을 듣고는 하나님께 몇 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들고 있는 저는 외면하시는 거냐며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되돌아보니 11년 전 어느 가을날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제 사업장인 학원은 순 예배 장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제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학원을 순 예배 장소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당연히 지켜주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2월 겨울부흥회 회개기도 시간에 저는 이 학원이 주님이 주인이신 사업장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공동체 목사님으로부터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스테이션으로 학원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 스테이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테이션 예배 준비는 학원 수업이 모두 마친 뒤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밤마다 의자를 배치하며 이곳에 앉아 기도하실 분들을 생각합니다. 내일 일기예보를 들으며 오실 분들의 불편할 발걸음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테이션을 찾는 분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작년엔 스테이션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며 중·장년세대들이 더욱 깨어 기도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특새를 마칠 때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 또 다시 스테이션을 섬기자는 결심은 쉽게 서지 않았습니다. 10년째면 습관처럼 섬길 법도 한데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감도 같이 커져 매년 망설여집니다. 올해 스테이션 첫 날에는 50명의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스테이션을 가득 채운 성도분들을 보면서 잠시 고민했던 지난 시간을 또 회개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분들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을까,’ ‘주님이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기도했던 시간을 잊고 내가 또 주인처럼 행동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올해 특새를 통해 새로운 기대감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

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달콤한 열매로 다가왔고 기도가 답이라는 고백도 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 저 혼자 스테이션을 섬기지 않았습니. 이번 특새 기간 중 부모님이 위독해 헌혈이 필요했을 때 나의 일처럼 달려가 헌혈해주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명절에 안타깝게 부모님께서 소천하셨고 황망해하는 집사님 내외분 곁을 예배로 가득 채워주시는 교인분들을 보며 주

님 안에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주님 앞에 앉은뱅이였던 저를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라는 등대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겠지만, DS홀에서의 떨렸던 그 첫 예배를 생각하며 주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10년 후 저의 간증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맞춤형이며,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진선 성도 (W강남공동체)



2025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수험생 아이의 대학입학원서를 쓰기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새벽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기대를 가지고 해야 하며 우리의 인생이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입시의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숙제 먼저 하라고 다그쳤던 초등 5학년 이후, 아이는 성경을 멀리하고 예배에는 끌려가는 아이가 되어있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합격시켜 주시면 믿어보겠다고 하며 기도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중보기도 하면서 본인이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입시원서를 접수하고 경쟁률을 보게 되면서 점점 두려움이 커져갈 때 저의 기도를 바꾸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기도한다고 말했었는데 아이 입시를 망

치게 되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세상이 절망이라고 포기할 때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앞으로 일어날 축복에 대해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이에게 부어주시길 은혜를 믿고 선포했습니다. 아이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아이의 입시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뒤척이던 중에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됴이니” 찬양이 떠올라 몇 번이고 되새기며 찬양했습니다. 사실 그 날은 이웃의 수험생이 좋은 학교에 합격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 몹시 지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욕심의 노예가 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맞춤형이며, 남을 보며 질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불안함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특새가 끝날 때쯤 간증문을 써야 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자 발표의 날, 어떠한 결과에도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는 추가합격 되었습니다. 추가합격자 발표의 날,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아이의 입시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건너온 홍해를 이야기로만 듣던 아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합격을 기다리는 다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니어 청년부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 아이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2025.
04

권사스쿨 간증

03

1. 박지혜B 피택권사 (S서초공동체)
2. 김은령B 피택권사 (W서초공동체)
3. 황성혜 피택권사 (N서초공동체)



내 곁의 한 사람을 위해 보내진 소명적 존재, 권사

박지혜B 피택권사 (S서초공동체)



권사스쿨 강의 때마다 다 부목사님들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친 권사님들의 이야기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강정현 사모님의 친정어머님이신

백 권사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저의 믿음의 롤모델,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농촌과 지방 소도시 교회에서 헌신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기도 한 외할머니는 겨울이면 새벽기도회 몇 시간 전에 본당의 연탄보일러를 살피는 일부터 아픈 성도에게 죽을 쭉어 심방하는 일까지,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일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잠을 줄여가며 새벽마다 몇 시간씩 자손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자는 날이면 잠결에 외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린 마음에도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꼬마인 제가 보기에든 목사님 못지않게 숨은 사역을 하시는 외할머니가 대단해 보였던지 “이다음에 천국에 가면 할머니 집이 할아버지 집보다 훨씬 더 클 거야.”라고 말

해 어른들이 웃으셨던 기억도 납니다.

속상한 일은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면 된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던 외할머니는 억울하고 슬프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때로는 집 앞 정류장 벤치에서, 때로는 사택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목사 사택에서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는 아마 그때부터 2025년 권사스쿨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기에 사랑으로 소중하게 품어야 한다는 것,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힘을 부어주시길 구해야 한다는 것, 교회를 지키는 영적 어머니로서 강한 기도와 절제된 말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권사스쿨과 앞서가신 많은 권사님들, 그중 저의 외할머니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곁의 한 사람을 위해 보내진 소명적 존재’라는 것은 권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곁의 누군가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김은령B 피택권사 (W서초공동체)



새로운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합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예배가 새로운교회에 서의 첫 예배였고 이틀 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등록하자마자

바로 40일 특새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인해 피폐하고 메말라 있었고 섭섭병과 자가면역질환인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 대인기피증으로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가정도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등록한 지 5일 만에 시작된 특새부터 권사 임직식을 앞둔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떠오릅니다. 주일예배 성찬식 때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통과했던 시간, 매 주일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삶을 인도하셨고 특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약속을 주시며 큰 아이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주신 에스더 말씀으로 둘째 아이의 삶을 인도하시며 룯기의 말씀을 통해 저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CES, 부부학교, 부모학교, 대화스쿨, LTS, 예이비 등 양육프로그램들을 통해 피폐했던 저의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신 회복과 치유와 영적 성장의 선물을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로운교회에 와서 꼭 집사님이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는 자로서 순간순간이 떨리고 조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기대가 컸던 권사스쿨 시간 동안 저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 권사의 직분을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의 전사로 더욱 영적 몸부림을 치기 원합니다.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권사님의 본을 보여주신 사모님의 친정어머니처럼 발이 까맣게 변하도록 기도한 후에 말하고 행동하기를 깊이 다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말의 권세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βολ로 목사님을 양육했던 브리스길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현숙한 여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울과 동역했던 루디아처럼,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보호하며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권사다운 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황성혜 피택권사 (N서초공동체)



지난 2005년, 뜻하지 않은 안면마비를 겪으며 기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났으니 믿음 생활한 지 햇수로 20년째입니다. 지난해 말엔 직장의 갑작스러운 글로벌 조직 개편으로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쉽 없이 달려오던 제게 속한 조직이 없어지고, 사회에서 가졌던 모든 직함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멈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권사스쿨’과 ‘40일 특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믿음 생활 중 가장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허락하시고 이끄신 주님의 예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회사의 조직 개편으로 이전 대비 몇 분의 일로 축소된 역할은 제게 일할 동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저 없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보통의 저라면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지만 특새와 권사스쿨 덕분에 너무나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성경 통독을 하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새 스테이션의 마무리를 돕기도 하고, 새벽 예배 후 청년들과 모닝커피를 하며 나눔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의 직장이 새로운교회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평상시처럼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면,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영적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연말부터 접촉이 온 두어 개의 회사와 인터뷰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고 이리다가 주님께서 특새가 끝나는 시점에 큰 은혜의 선물처럼 새로운 직장을 열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좀 더 갈급하고 간절한 기도를 원하셨나 봅니다. 사탄 마귀는 늘 그렇듯이 순탄한 진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IT 기업과의 인터뷰 과정이 상당히 진행될 무렵, 어떤 이유인지 계획에도 없던 몇 번의 비공식 인터뷰와 추가적인 평판 조회,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평판 조회가 진행되며 일정이 마구 늦어졌습니다. 이미 세 달에 가까운 인터뷰 과정을 진행했던 저로서 ‘여기까지 와서 안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로부터 앞으로 보름 이상 지연될 것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 덕분에, “이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기도

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담대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건너는 것은 과학이고, 갈라지기 전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특새 설교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겼지만, 반쪽짜리는 아니었을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건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무렵 교회 지휘자님의 독창회에 갔다가 앙코르송이 불러질 때, 뒷 배경에 쓰인 글귀를 접했습니다. “너의 열심으로 하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가자”. 눈물이 끝도 없이 철철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고 심지어 간증하고 다니면서도, 나는 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열심을 못 믿고 나의 세상적인 능력과 열심을 내세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약 2:18)

마지막까지 정말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자복하고 다시금 권사스쿨과 특새의 남은 여정에 몰두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인터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로 평판 조회들도 기

대 이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한 개의 비공식 인터뷰가 남아있고 최종 결정까지 보름은 넘게 걸린다던 상황에서, 거짓말 같이 그 회사에서 입사 오퍼를 보내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 40일 특새와 권사스쿨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 이를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지만,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을 하는 순간,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를 약속의 땅으로 내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애쓰더니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며 온전히 저를 주님께 맡겨보려고 힘껏 연습을 해낸 것뿐이란 것ですよ.

2025년 권사스쿨과 특새의 영적 훈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 길을 나누고, ‘교회의 영적 어머니’인 권사로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하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25.
04

입교 및 세례자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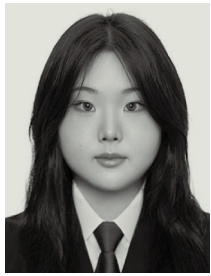
04

1. 김소명 학생 (뉴젠 고등부)
2. 김한나F 사모 (W강남공동체)
3. 이연정E 성도 (우면공동체)
4. 한혜림 성도 (N강남공동체)



그때 저는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김소명 학생 (뉴젠 고등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제 신앙의 고백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 의지가 아닌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교회는 일요일에 지켜야 할 일과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무조건 지키게 하시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반강제로 간다는 것에 반항심만 커졌었습니다. 볼 때마다 항상 성경을 읽고 계시고 찬양만 들으시던 엄마를 보면 난 저렇게까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다고 배워왔고 그게 너무 당연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믿음에 대해 고민할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교회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나이가 되자, 지금껏 저에게 너무도 당연했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했었고, 친구들이 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는 대답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중등부에서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수련회 당일

이 잠깐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실패감이 쌓여서 어차피 이번 수련회에서도 안 만나주시겠지 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니오빠들 모두가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진 않을까, 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시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걸까 궁금하고 부러워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간에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절대 가질 수 없는 생각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련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폐회 예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나고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나날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 노력하다 보니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건지 그 큰 사랑의 크기가 가늠도 안 되어서 벽치고 감사합니다. 태초년부터 저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엄마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새로운교회 고등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엘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한나F 사모 (W강남공동체)



항상 가장 큰 선물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몸이 아파 약을 먹으려다 문득 임신 테스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깜짝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신한 지 벌써 2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유산을 경험했기에 임신의 기쁨보다 불안이 앞서 있었습니다. 세 달이 될 때까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해서 더욱 두려웠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작게 들려온 심장 소리는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듯 아기를 온전히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태명을 '용기'라고 지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신 4개월 무렵, 운전을 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입덧을 하다가 순간 의식이 사라지면서 앞차와 큰 충돌을 했습니다. 작은 제 차는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부서졌지만, 다행히 앞차의 운전자도, 저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신사분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병원에 연락하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배속의 용기를 보호해 주셨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다가왔을 때, 오랜 진통에도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고 심박수는 떨어지고 있었습

니다. 급히 검정한 결과, 태줄이 용기의 목에 두 번이나 감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술할 시간은 없었고, 우리는 5분 안에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며 손으로 직접 태줄을 풀어 주셨고, 마침내 우리 셋째 아이, 용기가 9시 50분에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 집에서 기도하던 가족들은 9시 45분경 갑자기 첫째 주은이와 둘째 노아가 "용기야, 나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기도하던 중이었고,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9시 50분에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넘어 우리 가족의 기도를 하나로 엮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태어난 이 아이에게 '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주엘'은 '하나님이 보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엘 2장 25-26절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의 황폐해진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되갚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딸로 키우겠습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소망을 전하는 딸로 키우겠습니다. 주엘이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땐 얼굴이 정말 어두웠는데 지금은 해처럼 밝아졌어요

이연정E 성도 (우면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예수님이 제 삶에 당연한 동행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교육으로 자라다 보니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다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율법 안에서 신앙과 세상의 나를 저울질해가며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첫째로서 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과 지역 유지이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실망시키드리지 않으려는 책임감에 늘 모범생의 모습은 당연한 삶이며, 의무적인 행동들로 인해 기쁨, 감사, 행복은 저와 거리가 먼 감정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저 참아야 하고 또 참아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형통함의 축복인 줄 알았으며, 몇 대째 믿음의 가정, 장로님네 가정, 누구 누구의 딸로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엘리트 운동선수로서 유년시절부터 늘 심한 체벌과 경쟁, 시기와 다툼, 왕따 승부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진정한 저의 모습은 승부욕도 없고 심약한 성품으로 성격에 맞지 않는 운동선수를 하느라 매일매일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부모님의 체면이 깎이는 것이 제가 체벌로 받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괴로운 일이고 전공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고생이 코뼈가 부러지도록, 눈탱이가 뺨탱이가 되도록 맞고 피가 줄줄 흐르도록 뼈따를 맞아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해할 부모님 걱정에 집에도 못 가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예수님을 부르며 10대도 없고, 20대도 없고, 30대도 없는 또래의 경험이라곤 전혀 해본 적 없이 매일 숨이 넘어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해야 했고 매일매일이 죽고 싶은 심정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시간이 지나가 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가정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지켜내야 하는 일들로 눈물을 흘려야 했고 나 자신만의 무게가 아닌 자녀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짖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왜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감정인 걸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

기에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어린아이들을 앞으로 안고 뒤로 엎고 새벽예배며 철야예배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희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어 새로운교회와 한 흥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며, CES를 통하여 바른 기독교 교리를 알아가며 드디어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큰 기쁨의 소식은 율법 신앙으로 눌러 있던 저에게 너무나 흥분되는 기쁨이었고, 드디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몰라 늘 영적으로 눌러 있었으니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었던 저는 새로운교회에서 오랜 기간 여러 양육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며 말씀의 뿌리는 빠르고 깊게 뻗어나갔으며 영적인 힘이 세상의 힘을 지배하는 역전을 보았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연정 자매, 처음 교회 왔을 땐 얼굴이 정말 어두웠는데 지금은 해처럼 밝아졌어요”라며 보기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니 역

지로 교회에 끌려온 못마땅한 서울역의 노숙자 같은 표정의 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 사진을 교체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궁금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오는 사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오십이 다 되어 이제야 입교를 하지만, 저의 자녀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입교를 합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것이고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기에 제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저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혜림 성도 (N강남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접하고 믿게 되었고, 어릴 적 꿈은 선교사나 조지몰러와 같이 기도하며 고아를 돕는 교육 관련 된 일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세뇌당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심의 영,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설교가 재미없다는 교만의 영, 공평하게 다른 신도 알아보고 싶다는 불신과 우상숭배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귀의 간계에 넘어져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병이 없으시던 엄마가 침대에서 누워 계시던 중 뇌출혈로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나 들어주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엄마를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좋은 곳인 천국으로 가셨다는 어른들의 말들이 상처였고 하나님이 더 미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한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염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제가 주인된 삶을 살며 저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

다 하는 방향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의속모를 통해 새로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5년도에 등록 교인이 된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죄됨과 상처들을 하나씩 고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점점 변화되었고, 하나님과 저만 아는 비밀 이야기들과 소중한 추억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이 달게 느껴졌으며, 트렌드를 쫓던 문화생활과 술자리 만남 등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찬양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기뻐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주, 타로를 보던 죄된 습관이 끊기고 과거의 상처와 죽음을 목상하던 습관들이 예수님을 목상하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저에게 큰 상처였고, 그 누구에게도 엄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못하고 엄마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엄마라는 말만 해도 눈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혼교실 첫날, 강정현 사모님께서 원가족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부모님에 대해 여쭙보실 때 저는 더 이상 회피하며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며 평평 울었습니다. 그 이후 믿음의 동

역자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하며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드러냄으로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공감하고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저를 부모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결혼식 문제로 시어머니와 저는 첨예하게 갈등하였고,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4번 연기가 되었고 결국 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남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저는 아이를 가지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기저에는 출산과 육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교실을 통해 결혼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태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남편은 결혼교실을 물꼬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양육 프로그램들과 공동체 야유회 교제,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과의 나눔 등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이는 절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말려야지라고 저 몰래 생각했었으나, 주일 예배 때 천사같이 환하게 웃는 뉴젠 아이들을 보며 아이를 낳게 되면 뉴

젠 예배를 꼭 보내야겠다고 생각이 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태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23년도 11월에 임신하였고 24년도 8월 1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하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쓰러지고 돌아가신 8월이 다가오면 저는 참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은 저에게 기쁜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임신과 출산, 육아는 행복합니다. 특세를 시작으로 마더와이즈 자유과정을 통해 성경적인 양육에 대해 배우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임신을 준비했고, 분만실에서 찬양을 틀며 건강하게 분만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임신과 출산을 했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어릴 적부터 제 손을 붙잡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집에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도 은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은하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로 베푸는 자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
04

청년1부, 청년2부 수련회 간증

05

1. 문예찬 청년 (청년1부)
2. 장수진 청년 (청년1부)
3. 강유화 청년 (청년2부)
4. 김연화A 청년 (청년2부)



이제는 정말로 똑바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문예찬 청년 (청년1부)



현대인은 바쁘다고 합니다. 분주함이 삶의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바쁘니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삶은 괜찮은 척하는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분주함이 저의 우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과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대학원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늘 무언가를 할 일을 갈망했습니다. 분주함은 조급함을 낳았고, 삶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채워진 채 하며 하루하루 견뎌냈습니다.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제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하루가 지났고, 내일을 기약했지만, 내일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만 꼭 붙어있으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당하기 전까진 제가 가지치기 당할

가지라는 것을 아마 모르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벌써 몇 번째 다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다짐해봅니다.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분주함,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시간이 많아지고, 믿음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쉽지 않아집니다. 이 안에서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지요. 저는 제 믿음이 아니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시간을 곳곳이 지키며 목을 곧게 세웁니다. 눈 앞에 있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똑바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수련회 때 가장 많이 기도한 것도 똑바로 살고 싶다는 기도였습니다. 내 안의 욕심이 많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쉽게 넘어지기에,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시니,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옆에만 꼭 붙어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똑바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중심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수진 청년 (청년1부)



저는 사실 수련회를 터닝포인트 또는 트로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탕자 시절이었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새로운 교회 대학부 때도 수련회는 꼭 참석했습니다.

참석 자체에 위안을 삼았었고 전 교회의 친한 언니가 “너는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가면서 수련회는 꼭 참석하네”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당시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련회는 뜨거울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그럼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보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있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사역도 꾸준히 하는 중이고 교회도 잘 가니까 그 자체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어떠한 문제를 해결 받고 나의 비전을 구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전 역경 극복 지수도 낮고, 믿음도 부족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회 때 여인들은 다 졸았지만 기쁨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되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여유가 부족하다 말합

니다. 여유가 부족하니 분노하고, 분주하고 분노하니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고, 저도 이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먼저 두지 않고 뒤로 미루다 내일로 미루고 그렇게 주일을 마주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뭇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하는데 자꾸 가짜 나무에 붙어있으려고 하고 가짜 나무에게서 열매가 열리길 기대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가지가 70%나 잘려 나가는 게 힘든 시간이겠지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광야를 주신다는 주님을 믿고, 항상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로 성장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팀을 섬기면서 우리가 전방부대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생각보다는 찬양의 완벽과 컨디션을 중요하게 여겼고, 실제로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예배 때 음향 문제로 리허설을 거의 하지 못했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악기와 목소리와 음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실력이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셨고, 그리하시기를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중심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생애를 걸쳐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유화 청년 (청년2부 공동체)



저는 어린 시절 말 못 할 슬픔에 짓눌려 자주 죽음을 목상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망이 함께 갈 수 없음을 알고 저는 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삶에 고난이 겹치면서 끊었던 저의 나쁜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성실하게 돌봐 온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튀어나와 저를 사로잡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이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삶의 현실보다, 이 현실을 꿰고 나갈 믿음이 없는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괴로운데 이 마음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때론 삶의 시련 앞에서 저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모두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어둠과 놀고 싶어 하는 빛은 없을 테니까요. 누구에게도 꺼내 놓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청년2부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서막.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 한 구절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다니시지 않는다. 대신 사랑할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화야, 나는 너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악하고 약한 소리나 하는 저를 정말 버려두실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비겁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어 평생 해결되지 않는 집안 숙제를 만들었습니다.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싸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연약함을 압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이삭을 바치며 믿음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연약함, 불순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 생애를 걸쳐 새롭게 되었듯 저의 믿음도 전 생애를 걸쳐 끝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벅찬 마음을 안고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갑니다

김연화A 청년 (청년2부)



오래전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던 중, 작년 여름 혼자서라도 가정예배를 시작해 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드린 첫 예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23장의 막벨라 굴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서막'으로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wig 가시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작년 첫 가정예배에서 주신 말씀이 이번 수련회의 말씀과 같았기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는데, 막벨라 굴은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기준점이 되며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이 담긴 소망의 표지가 된다고 목사님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작년 여름 드렸던 첫 가정예배가 이 막벨라 굴과 같으며, 그날의 예배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교두보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구원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어쩌면 이 일이 중대해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의 전부였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산 정상으로 끌어올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사용하신 것처럼 가족구원 사건을 통해 저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속상했던 마음은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드린 주일예배는 수련회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나나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가나나 같았던 수련회에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저는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벅찬 마음을 안고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소유한 것 같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저의 결핍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
04

화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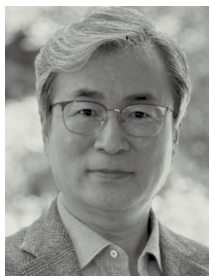
06

1. 정성호A 성도 (W강남공동체)
2. 김경은A 성도 (E서초공동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성호A 성도 (W강남공동체)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 등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많은 업무 수행으로 너무 바빠 지내다 보니 깊이 있는 성경 묵상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 친밀함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신앙이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2025년 상반기 사도행전 커피 브레이크(이하 커피) 모임을 통해 다른 형태의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경 묵상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행 초기에는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인도자님의 질문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는 그동안 성경을 대해 왔던 나의 접근 방식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준비된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과 함께 말씀을 단어, 구, 절, 문장, 문단, 단락 별로, 그리고 문맥과 원어를 토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커피 준비 과정과 나눔 과정에서 말씀이 단순한 텍스트로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음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달라졌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커피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접근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지나가는 말씀도 그동안 커피의 질문과 해석 방식을 토대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경 속의 스토리를 내가 처한 상황에도 적용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많이 읽기도 하도 다양한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의 흐름, 제자들의 변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초대 교회와 현대 교회와의 차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등은 이번 커피를 통해 알게 된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커피를 통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을 개발하신 인도자님의 큰 수고에 감사드리고, 커피에서 함께 나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징검다리와 같이 은혜의 길을 놓아주시는 하나님

김정은A 성도 (E서초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늘 창피함을 이겨내야 했고,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순방학이 시작되며 용기를 내어 커피브레이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모임은 제게 부담이어서 매년 신청을 망설였는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서 남편에게도 함께 신청하자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친정 가족들은 제가 태어난 이후 믿음을 잃어버리셨고, 저는 혼자 위태롭게 약한 믿음을 지켜오며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도를 찾아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루살렘이고, 저의 친정 식구들은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제 주변인들, 땅끝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매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쪽 이어가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소중한 초석으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특새 간증을 들으며 우리 가정에도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갖고 싶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매일 새벽 큐티를 하자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서로 기쁘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나를 주눅 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신 커피브레이크 조원분들과 인도자님 덕분에 마음껏 말씀 묵상에 폭젓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벌써 다음 커피브레이크가 기다려집니다.

2025.
04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 소개:

07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을 소개합니다!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의 아동인 수용자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움은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아동복지 전문단체입니다. 수용자 자녀는 제 2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6월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지닌 죄의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원칙에 의해서堂堂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 역시 대한민국의 한 아동으로堂堂하게 세워져 가길 바라며, 세움은 한 아동을 향한 아동중심적 접근 - 전인격적 지원, 천부인권적 관점, 일대일의 만남 - 으로 눈과 마음을 맞추며 아동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범죄와 상관없이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의 수용자 자녀들이 안전한 보호 속에 건강하게 성장하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으로堂堂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이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도록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인 권옹호,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낮은 수용자 자녀를 세워가는 일. 가장 작기에 소외되거나 잊히기 쉬운 아동, 숨겨져 있기에 다가가기 힘든 아동, 수용자 자녀의 친한 친구이자 기댈 어깨 '세움'이 함께 합니다.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 환경 조성

세움은 수용자 자녀 한 명이堂堂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개별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수용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옹호활동을 통해 수용자녀 지원의 정책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미시적 지원을 넘어 정책을 바꾸는 거시적 활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

2023년과 2024년, 세움은 위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부처 아동복지 담당자들과 법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움은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이堂堂히 일어서게 하는 경제적 지원

부모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수용자 자녀들은 빈곤아동보다 5.5배 더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세움은 부모가 수감된 이후 교도소로부터 추천받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출소할 때까지 맞춤형 개별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등학교생 7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의 용돈지원, 교육비 특기와 진로에 맞는 20-50만원 지원/월, 긴급 생계비, 의료비, 생일선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수용자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출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 양육 유아 지원

부모의 잘못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도소 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생후 18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년 약 10-12명의 1-18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수감된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 살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 양육 유아들이 엄마 품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옷, 이유식을 지원합니다.



긴급 위기 지원

안전한 보호, 건강한 성장, 숨을 쉴 수 있도록 티움, 싹을 틔움

수용자 자녀들은 양육자가 2-3번 변경되기도 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로 이사하기도 하고, 학교를 전학 가야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한부모 가족아동의 경우 한쪽 부모의 수감으로 양육자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움은 부모의 수감으로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수용자녀들에게 긴급 의료지원, 생계비, 체납공과금,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심리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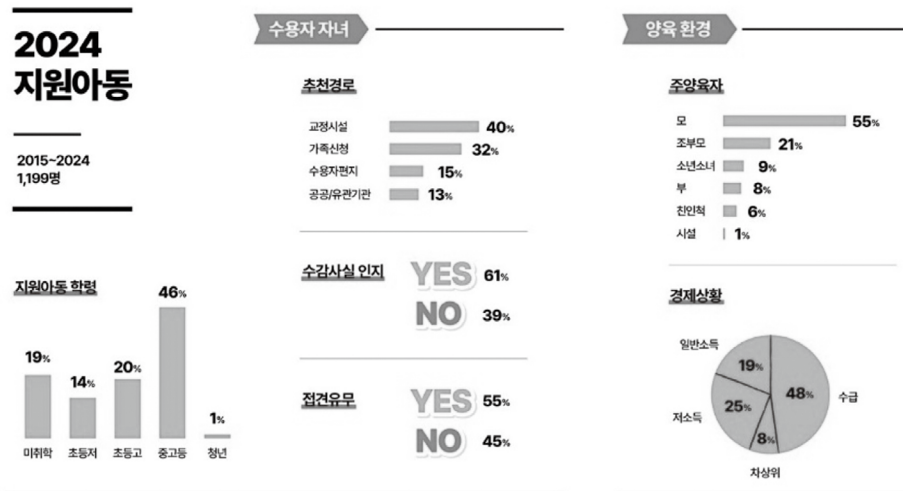
마음이 단단하게, 다시 시작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닌 수용자 자녀와 가정에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심리상담 및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수용자 자녀와 남겨진 가족들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체포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없어진 부나 모에 대해서 아이들은 심각한 충격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세움은 부모의 수감으로 아이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아이들의 욕구와 심리검사에 따라서 개별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동작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 상담, 양육교육,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소한 양육자와 관계회복을 위해서 가족상담, 가족여행 등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 세움 홈페이지: www.iseum.or.kr





Lined writing area for notes.

2025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4.15(화)-4.19(토) 오전 6시
새로운교회 본당
| 부활주일 예배 | 4.20(주일) 1-4부 예배

MESSAGE

- D-1.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 19:23-27)
- D-2. 다 이루었다 (요 19:28-30)
- D-3.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요 19:31-37)
- D-4.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다 (요 19:38-42)
- D-5.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다 (요 20:1-10)

Wednesday Prayer Worship



4월 수요기도예배 십자가

- | | |
|-------------|-------------|
| 4/2 최지훈 목사 | 4/9 이상화 목사 |
| 4/16 강현구 목사 | 4/23 김대훈 목사 |
| 4/30 이승호 목사 | |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